

“주몽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 시민권익위 최종 권고

안전성·경제성 등 놓고 찬반갈등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예정 연구용역 통해 부지 활용 모색도

드라마 ‘주몽’을 촬영했던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고구려궁 세트장 운영을 결정지을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는 ‘철거 권고’로 마침표를 찍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를 골자로 한 정책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당 권고안을 시에 제출했다.

해당 드라마세트장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박물관과 연계해 ‘재활용 존치’



나주시민 권익위가 주몽 고구려궁 세트장 철거를 최종 권고 했다.

나주시 제공

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보존을 통한 용도 전환을 촉구하는 철거 반대운동이 펼쳐지면서 ‘찬반 갈등’이 지속됐다.

이에 나주시는 ‘구조물 내진 안전성’과

‘유지예산 투입 대비 경제성’ 평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전문가 현장 점검과 심층 토론회에 이어 권익위 위원 간 최종 토의를 거쳐

‘철거안’을 확정했다.

지난 16일 열린 권익위 위원 간 토론회에는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린 위원을 포함해 총 25명의 재적 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정책권고안을 확정함으로써 법원 판결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갖게 됐다.

다만 시민권익위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과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박물관 2단계 사업부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전남도와의 합동 연구용역을 조속히 추진 해줄 것을 나주시에 추가로 권고했다.

시민단체는 고구려궁 세트장이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철거된다면 해당 부지에 진취적인 고구려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상징적인 추억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영태나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갈등 현안에 대해 소수의견 일지라도 경청하고 헤아려 원만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권익위의 첫 번째 정책권고안’이 나주 지역사회의 토론, 속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시 공산면 나주영상테마파크 일원에 들어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정신 계승을 위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박물관 착공식은 오는 5월 2일 개최될 예정이다. 박물관은 오는 2025년 말까지 나주 공산면 신곡리·백사리 일원 부지 2만2396㎡, 연면적 6993㎡에 지상1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건축현장 ‘상시 점검반 운영’ 부실시공 뿌리 뽑는다

소규모 건설공사 대상 공정 누락·부실 설계 등

나주시가 관내 소규모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소규모 건설공사 대상으로 이뤄지는 점검을 통해 시 재정 건전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시공 상시 점검반을 운영한다.

1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는 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시행돼 일부 공사의 경우 공정 누락 및 부실 설계로 시 재정 가중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관리·점검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시는 재정 건전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24년 1분기 공사 발주전 194건을 검토해 잔토 처리 비용 등 누락된 공사비를 증액하고, 공사 자재 중목 계상비를 감액했다.

윤병태 시장은 “상시 점검반 운영을 통해 공사 설계 단계부터 준공까지 빈틈없는 관리에 나서겠다”며 “이번 점검반 운영이 시 재정 건전화와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더욱 청렴하고 올바른 지역 건설문화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현장 작업근로자 안전도 미착용 및 공사 안내간판 미설치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 현장에 방치된 잔토를 반출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경찰 영산파출소, 학교 앞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 영산파출소는 지난 16일 나주 영산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앞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영산파출소장을 비롯하여 영산파출소 경찰관과 이창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생활안전협의회, 이창동 통장단, 자율방범대 등 30명이 참여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진행되었다.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

해 운전자들을 상대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의사항 및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을 알리고, 어린이들에게는 “서다·보다·걷다 어린이 보행안전 3원칙”을 홍보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위주량 영산파출소장은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미용업소 영업주 대상 위생·친절교육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미용업소 기존 영업주 대상 위생·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정실 미용협회 나주시지 부장을 비롯해 미용업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기술 교육이 진행됐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K-뷰티산업의 선도 업종인 미용업주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 시 예산으로 소독기를 구입·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생 시책

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 전 위생교육(3시간, 현장 또는 온라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로 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6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지난 13~14일 나주시립테니스코트 등 10개소에서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

나주시 제공

제23회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 성료

나주에서 열린 ‘제23회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나주시립테니스코트 등 10개소에서 ‘제23회 나주배꽃배 테니스 대회’가 열렸다.

나주시테니스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남자오픈부, 남자일반부, 여자

오픈부, 지도자·동호인부 총 4종목, 80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일반부는 비우승자 선수 2명이 팀을 이뤄 출전하며 오픈부는 비우승자 선수와 우승자 선수가 팀을 이루는 종목이다.

대회 결과 남자오픈부는 여수스타클럽 소속 이정훈 선수와 잠조은클럽 소속 이

주안 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여자 오픈부는 파이팅클럽 소속 정명순 선수와 광양항만클럽 김세정 선수, 남자일반부는 어등산클럽 소속 노기섭 선수와 김광선 선수, 지도자·동호인부는 목포청솔클럽 소속 양동복 선수와 현대삼호클럽 소속 양한식 선수가 각각 우승컵을 들었다.

이번 대회는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중심으로 테니스 열풍이 부는 만큼 나주시의 테니스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스포츠 대회 풍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오늘부터 태산배 스쿼시 선수권 20일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

나주시가 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스쿼시가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의 서막을 올린다.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제4회 태산배 전국 스쿼시 선수권 대회’가 나주스쿼시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전국 400여 명의 스쿼시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대한스쿼시연맹, 전남스쿼시연맹이 주최·주관하며 초·중·고등, 대학, 일반부의 전종별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스쿼시 종목의 인지도 향상과 스포츠 시설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쿼시에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제22회 나주배꽃배 전국남녀 배구대회’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등 6개소에서 개최된다.

전국 배구동호인 70개팀 8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나주시의 인기 스포츠 대회로 발돋움 중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배구 문화 저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4월 스포츠 대회의 대미는 ‘제41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가 장식한다.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전라남도사이

클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사이클 선수단 700여 명이 참가한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실업 사이클대회 중 이번 대회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사이클대회는 코로나와 경기장 보수로 인해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01년부터 열리고 있어 지역 대표 효자 대회로 손꼽힌다.

대회 1-2주 전부터 적응훈련을 위해 상당수의 선수단이 나주시를 미리 방문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시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조대봉 기자